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세미나 '미중 갈등속에 한국의 기회와 선택'이 있었습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경제]

- WSJ: 미 빠른 고용 둔화, 향후 경기 냉각 신호
- Bloomberg: 오늘 미 고용 보고서 핵심 내용은
- Bloomberg: '연준 금리 인상 사이클 끝난 것으로 보인다'
- Bloomberg: 미 서비스업 성장률, 5개월만에 최저

#### [미국 생활]

- Bloomberg: 미국인 코로나 이후 36% 덜 걷는다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동네 체인 약국 불친절한 이유는
- WSJ: 아마존 의류 매장 폐쇄한다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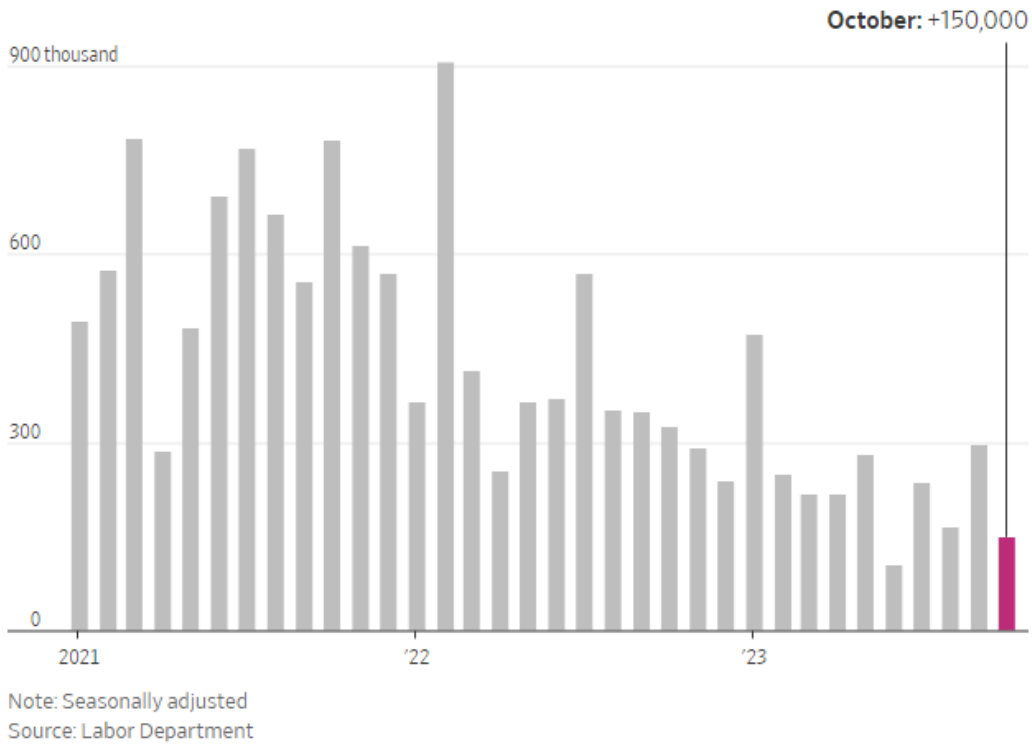
#### [미국 경제]

#### **WSJ: Sharp U.S. Hiring Slowdown Signals Cooling Economy Ahe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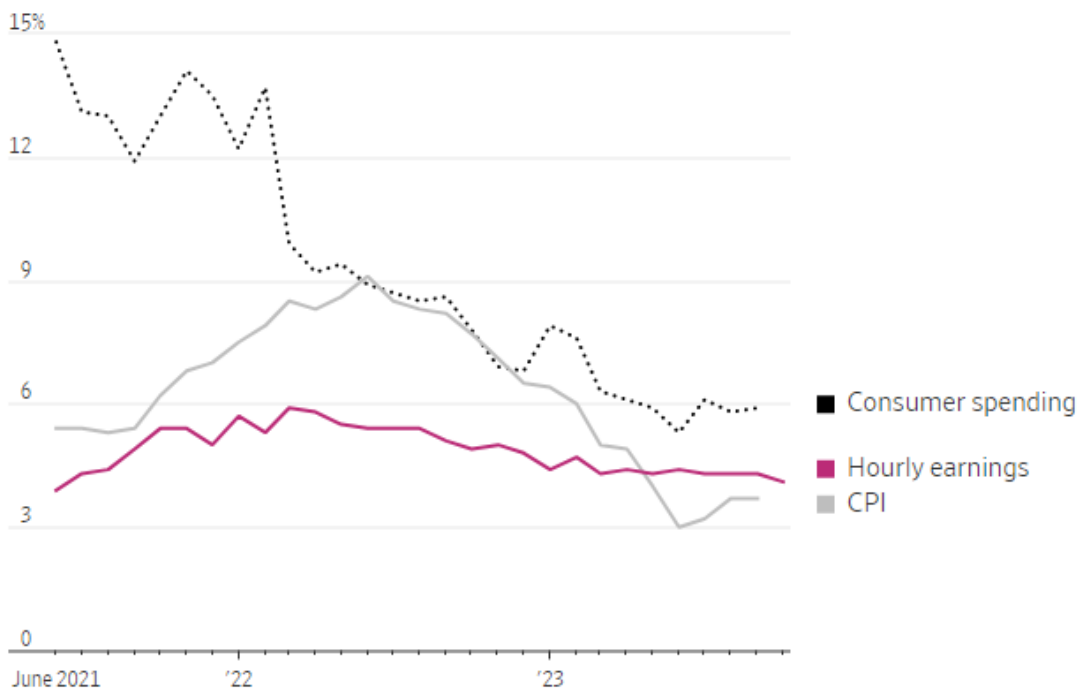
#### **미 빠른 고용 둔화, 향후 경기 냉각 신호**

- 요지: 오늘 발표된 미 일자리 발표에 따르면 고용주는 지난 10월 이해 가장 적은 숫자를 채용한 반면에 실업률은 10월에 상승했다.
- 올 여름 빠른 경제 성장에 이어 10월에 고용이 크게 둔화되어 올 가을에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연방 노동부의 오늘 금요일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미 고용주들은 15만명을 채용해 지난달 상향 조정된 29만7천명보다 크게 낮았는데 지난 6월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실업률은 9월의 3.8%에서 10월에 3.9%로 상승했다.

**Total nonfarm payrolls, change from a month earlier**



**Wages, prices and spending, change from a year earlier**



Note: Consumer-price data are through September and not seasonally adjusted. Wage data are average earnings for all private workers and are seasonally adjusted. Consumer spending data are through September and based on seasonally adjusted and annualized levels.  
 Source: Labor Department (earnings, prices) and Commerce Department (spending)

WSJ 기사

**Bloomberg: Here Are the Key Takeaways From the US Jobs Report for October**  
 오늘 미 고용 보고서 핵심 내용은

- 10월 고용은 15만명으로 예상치 18만명보다 줄었다. 고용 증가세가 줄어들긴 하지만 여전히 좋은 노동 시장 상황이다.
- 특히 자동차 파업으로 자동차사는 3만3천명 줄었다.
- 평균 주간 근무시간은 34.3시간으로 줄어 고용주의 수요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노동 참가율은 62.7%로 줄었다. 실업률은 지난 2022년 1월 이래 가장 높은 3.9%다.
- 보고서 발표 직후 주식 시장 지수는 S&P 500 이 0.4% 상승했고 나스닥도 상승했다. 국채 수익률은 감소하면서 10년물은 4.9%에서 4.5%.
- 투자자들은 연준이 내년 7월 보다 빠른 6월로 앞당겨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

Bloomberg 기사

### **Bloomberg: Fed Hiking Cycle Looks Done After US Jobs Report Shows Cooling**

#### **'연준 금리 인상 사이클 끝난 것으로 보인다'**

- 오늘 금요일 발표된 미 일자리 보고서에 따르면 미 고용시장이 냉각되면서 연준이 12월에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여 연준이 지난 40년동안 가장 공격적인 금리 인상 조치를 끝냈다는 시장의 전망이 힘을 더하고 있다.
- 웰스파고의 선임 경제학자인 Jay Bryson은 “당신이 연준 관계자라면 듣고 싶었던 소식”이라고 연준에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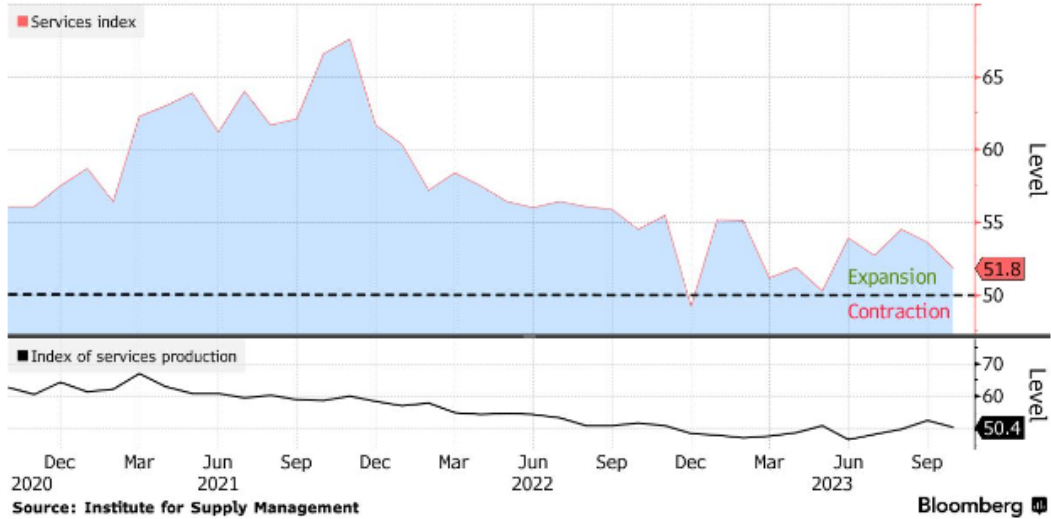
Bloomberg 기사

### **Bloomberg: US Services Growth Slips to Five-Month Low as Activity Softens**

#### **미 서비스업 성장률, 5개월만에 최저**

- 미 비즈니스 활동이 완화되고 고용주의 채용이 줄어들면서 10월 서비스업 활동이 지난 5개월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ISM(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의 10월 서비스 지수가 지난 3월 이후 가장 큰 1.8포인트로 줄어 51.8로 나타났다. 여전히 50을 넘지만 매월 불확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지난 3개월 동안 거의 2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한 경제가 4분기에 다시 침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Service Sector Cools on Softer Business Activity ISM services gauge fell to five-month low in October



Bloomberg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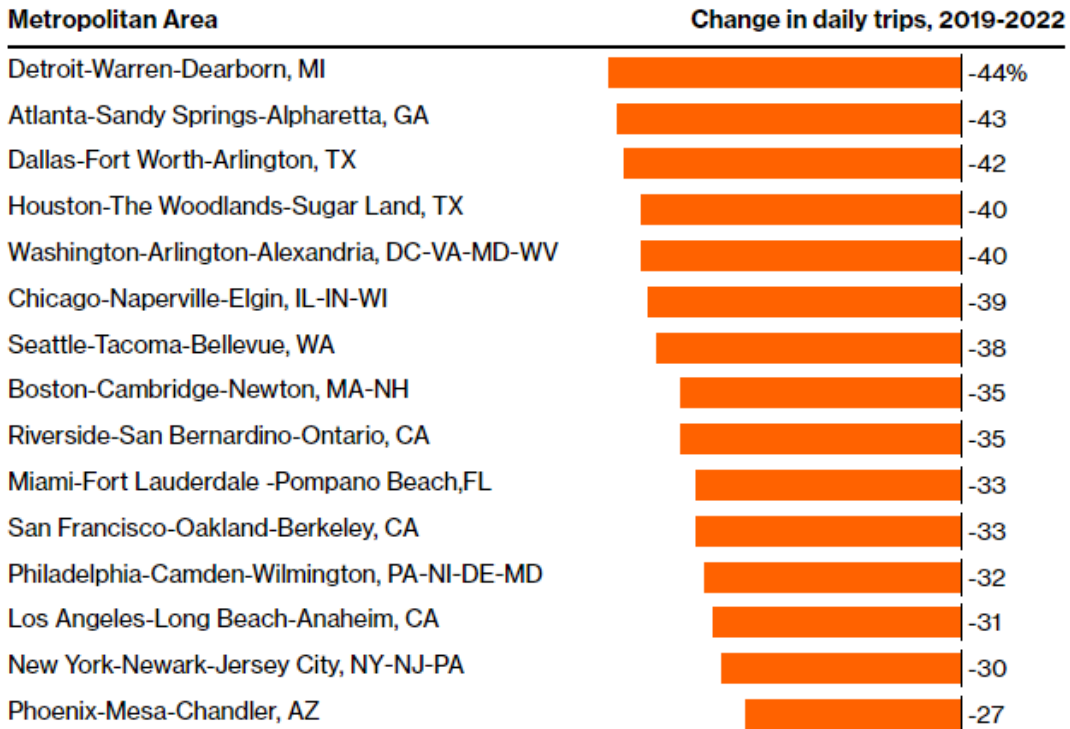
### [미국 생활]

#### Bloomberg: Americans Are Walking 36% Less Since Covid

#### 미국인, 코로나 이후 36% 덜 걷는다

- 미 전역에 보행자 사망자 숫자가 40년래 가장 높은 수치였지만 팬데믹 시작 이후에 보행자가 크게 줄고 있다. 반면 자전거 사용은 크게 늘고 있다.
- StreetLight Data이 어제 목요일 발표한 관련 교통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미 전역에서 연간 평균 매일 걷기가 36% 줄었다. 인구가 가장 많은 1백대 도시 등의 경우 최소 20% 감소했다.
- 지역적인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지역에서 걷기가 줄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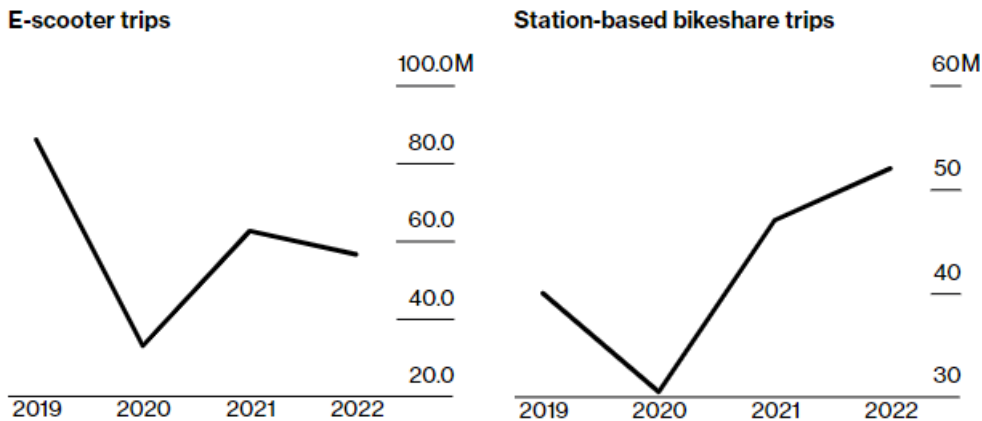
## Walking Trips Declined During Covid in 15 Largest US Metros



Source: StreetLight Data

## Micromobility Rides Rebound From Depths of Covid

Docked bikeshare use surges, while e-scooter trips have yet to recover fully



Source: National Association of City Transportation Officials

Bloomberg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Why Your Neighborhood Pharmacy Isn't So Friendly Anymore 동네 체인 약국 불친절한 이유는

- CVS Health와 Walgreen가 과로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직원들과 잦은 처방전 실수에 대응하고자 고군 분투중에 있다.

- 이 기업들의 약사들과 직원들은 최근 몇 주 동안 전국 각지에서 파업을 벌였다.
- 고객들의 불만 또한 커지고 있다. 소비자 리서치 기업인 J.D Power에 따르면, CVS의 만족도는 2021년에서 올해까지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Walgreen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25% 떨어졌다.
- CVS와 Walgreens는 업계 전반에 걸친 노동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한다. Walgreens가 약국 직원을 고용하고, 유지하기 위해 회계연도 8월 말까지 지출한 투자 금액은 2억6천5백만 달러이다. 이는 작년 1억9천만 달러를 투자한 것보다 많은 금액이다.
- CVS 또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시범적으로 일부 약국에선 고객의 전화를 받지 않는 대신해 나중에 보이스 메일을 나중에 따로 보내는 것이다.

WSJ 기사

### WSJ: Amazon Is Shutting Down Its Clothing Stores 아마존 의류 매장 폐쇄한다

- 아마존의 오프라인 의류 매장을 폐쇄함으로써 패션 제품을 오프라인 공간에 제공하려던 기간을 일찍 끝냈다.
- 폐쇄 지역은 캘리포니아 글렌데일과 오하이오 컬럼버스. 이번 조치는 서점과 다른 아마존 오프라인 공간의 폐쇄에 이어 나온 조치다.
- 이에 따라 이 회사는 오프라인 소매점으로 아마존 프레쉬 스토어와 호울푸드 마켓만 운영하고 있다.

WSJ 기사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 "고금리 장기화, 美 경제에 많은 혜택 불러올 수도"

### WSJ "경기 침체 온다면 금리 인하 여지 더 많아져"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전망이 투자자들을 불안케 하고 있지만 오히려 미 경제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 일(이하 현지시간) 진단했다.

대표적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경우 금리를 내릴 공간이 커져 다른 비상 수단을 써야 할 필요성을 줄인다는 것이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 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후 예상대로 5.25~5.50%인 현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_office@kocham.org](mailto:Unsubscribe_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